

빈도 분석을 활용한 한·영 사망기사 특징 비교

A Corpus-driven Approach to Korean and English Newspaper Obituaries

신혜정
조선대학교

Hyejung Shin(hjshin@chosun.ac.kr)

요약

사망기사는 각 언어·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언어학적 관점에서 사망기사를 조명한 최근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코퍼스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 및 영미권의 사망기사를 비교 연구하였다.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 워드스미스(WordSmith)의 어휘목록(wordlist), 클러스터(cluster) 분석과 용례색인(concordance)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영어 사망기사에 등장하는 고(高)빈도어를 찾고, 이로부터 각 언어 사망기사의 의미 있는 패턴을 포착하여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분석한 코퍼스에서 한국과 영미권 사망기사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

■ 중심어 : | 신문 사망기사 | 코퍼스 분석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뉴욕 타임스 | 가디언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newspaper obituaries in Korean media and English media. Initially, 100 Korean obituaries were collected from the JoongAng Ilbo which span over more than three years, from May 2011 to August 2014. After that, another 50 Korean obituaries were gathered from the DongA Ilbo which were published over the same time period with the JoongAng Ilbo. As for English newspapers, obituaries from the New York Times and the Guardian were included in the corpus for comparison.

First,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obituaries in each language (Korean and English) are compared. Korean obituaries show a pattern of a combination of a death notice and an obituary.

Second, distinct features of each newspaper are discussed. The JoongAng Ilbo has its obituary section titled "Life and Memories", and the DongA Ilbo's obituaries are under the heading of "Rest in Peace." Obituaries in the New York Times appear in print on different pages of the paper according to the deceased's field of interest.

Following discussion of form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newspaper, Korean and English obituaries will be compared in terms of content and cultural context.

■ keyword : | Newspaper Obituaries | Corpus Analysis | the JoongAng Ilbo | the DongA Ilbo | the New York Times | the Guardian |

I. 연구 배경

대중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죽음은 공적인 기록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신문은 부고를 통해 고인의 죽음을 대중에 알리고, 사망기사로 고인의 삶을 기록한다. 국제적으로 저명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사망한 경우, 고인이 속한 국가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사망 기사를 내어 고인의 삶을 돌아본다. 부고와 사망기사가 죽음의 공적인 기록으로서 기능하는 점은 한국과 영미권 문화가 동일하지만, 두 문화권에서 부고 및 사망기사의 쓰임, 독자 수용, 텍스트 양상 등을 살펴보면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신문 부고와 사망기사는 해당 언어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학문적 탐구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예는 텍스트유형학의 관점에서 독일과 한국의 부고를 비교한 박여성^[1]과 이성만^[2]의 연구가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로는 사망 기사를 사회적 권력관계가 반영된 집합기억의 산물로 본 이완수 외^[3]와 미국 및 한국 신문 사망기사와 부고 제목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을 연구한 전지연^[4]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및 영미권의 신문 사망 기사를 코퍼스(corpus)로 구축하여 사망 기사 텍스트의 내용 및 형식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 및 해당 문화권의 사망 기사 체계를 분석하고 고유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II. 코퍼스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미권 신문의 사망 기사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기사를 모아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 역사와 발행부수로 볼 때 한국의 유력 일간지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두 신문이 온라인판에 고정적으로 사망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뉴욕 타임스와 가디언은 각각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 있는 일간지이며, 이들의 사망기

사는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디언, 뉴욕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 등 세계 주요 일간지는 사망 기사들을 따로 묶어 책으로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 타임스(이하 NYT)와 가디언(이하 GUARDIAN)을 각각 미국과 영국의 분석대상 텍스트로 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각 신문의 온라인판 사망 기사를 모아 한국어 및 영어 코퍼스를 구축했다. 인쇄본(print edition) 대신 온라인판(online edition)을 대상으로 한 것은 기사의 검색 및 수집이 용이하며 사망 기사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먼저 중앙일보의 사망 기사 코너 [삶과 추억]의 기사를 모았다. 2011년 5월에서 2014년 8월에 이르는 최근 3년여의 기간 동안 발행된 기사 100개를 전자문서화했다. 사망기사의 고인은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한국인이 69명, 외국인이 31명이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발행된 [명복을 빕니다] 사망 기사를 모았다. 상기한 중앙일보 [삶과 추억]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행된 [명복을 빕니다] 기사는 50개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최근 3년 내 발행 기사를 조사해보니 고인이 동일한 경우가 29건이었다. 즉, 중앙일보 [삶과 추억]과 동아일보 [명복을 빕니다]에 공통적으로 사망기사가 게재된 고인이 29명이었다. 이후 NYT와 GUARDIAN 사망 기사를 수집할 때도 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 동안 발행된 기사를 모았고, 되도록 여러 신문에서 중복된 고인의 사망 기사를 중심으로 수집했다. 동일 기간 및 동일 인물로 제한하여, 언어 및 문화 외에도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영미권 신문 사망기사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밝히기 위함이다.

III. 한국어 vs. 영어 사망 기사 대조 분석

1. 한국어와 영어 사망 기사 구조 비교

1.1 한국어 사망 기사 구조

[표 1]은 중앙일보 사망 기사 [삶과 추억]의 기본구조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옥진 여사(2012년 7월 9일 타계)의 사망 기사를 예시하였다.

표 1. 중앙일보 [삶과 추억] 구조

기사 입력/수정 시간	입력 2012. 07. 10 00:10 수정 2012. 07. 10 00:17
제목	[삶과 추억] '1인 창무극' 공옥진 여사 타계
부제	질펀한 춤·소리·입담·연기 '타고난 예인' 곰사춤·홍타령·살풀이춤 ... 70년대 '원조 멀티 플레이어' 박진영 '최고의 엔테테이너'
사진	(지면 제약 상 생략)
본문	세트도, 조명도, 분장도 필요 없었다. 그저 널찍한 공터에 목 축일 막걸리 한 대접이면 너끈했다 ... '1인 창무극(唱舞劇)'의 대가이자 '병신춤' 곰사춤의 명인 공옥진씨가 9일 오전 전남 영광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79세 ...
유족	유족으로는 딸 김은희(63)씨와 손녀 김형진(40)씨가 있다. 결혼 2NE1 멤버 공민지의 고모 할머니이기도 하다.
빈소	빈소는 영광 농협장례식장.
발인일시	영결식 12일 오전 9시, 발인 및 노제 오전 10시.
연락처	061-353-0444
작성자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표 2]는 동아일보 사망기사 [명복을 빕니다]의 기본 구조이다. 양택식 전 서울시장(2012년 11월 14일 별세)의 사망 기사를 예로 들었다.

표 2. 동아일보 [명복을 빕니다] 구조

기사 입력 시간	2012-11-14 03:00:00 편집
제목	[명복을 빕니다] 양택식 前 서울시장
부제	1970년대 지하철 개통-강남개발 주도
사진	(지면 제약 상 생략)
본문	38년 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이라는 대역사(大役事)의 주역인 양택식 전 서울시장(사진)이 13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
유족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화 씨, 아들 원용(경희의료원 교수) 수용 씨(미국 공인회계사), 사위 김중건 부국증권 회장, 김승환 명지대 교수, 이석준 삼영화학 부회장이 있다.
빈소	빈소는 서울 경희의료원.
발인일시	발인은 15일 오전 7시.
연락처	02-958-9545
작성자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유족 정보는 자세히 제시되지 않고, 발인(장례식) 관련 정보와 연락처도 생략된다.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주로 활동한 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고인의 사망기사는 장례식 관련 정보 대신 고인의 말이나 글, 작품 등을 인용하여 끝을 맺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 신문의 사망기사는 유족(직함 포함), 빈소, 발인

일시, 연락처 정보가 제시되어 부고 기능을 겸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외에 별도의 부고(부음)란을 두고 있는 국내 신문들의 사망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영미권 신문은 사망기사가 아닌, 유족이 낸 부고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인의 사망 사실과 장례일정을 알리고, 고인이 지정한 기부처에 (부의금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한다[그림 1].

DORIS K. ARONOW
Obituary

ARONOW-Doris, K., age 91, died peacefully on August 19, 2014. Wife of the late Ira. Mother of Patti Camilli (Dominique) and Geoffrey (Melinda Halpert). Grandmother of Blake Bueckman (Daniel) and Adam and Zachary. Great-grandmother of Jacob. Services Friday, 11am at "The Riverside" 76th Street and Amsterdam Ave. Donations may be made to The ACLU or First Book.

Published in The New York Times on Aug. 21, 2014

그림 1. NYT 부고[5]

1.2 영어 사망기사 구조

[표 3]은 NYT의 사망기사 기본구조이다. 예시는 2014년 7월 13일 타계한 지휘자 로린 마젤(Lorin Maazel)의 사망기사이다.

표 3. NYT 사망기사 구조

제목	Lorin Maazel, an Intense and Enigmatic Conductor, Dies at 84
작성자	ALLAN KOZINN
기사 입력일	JULY 13, 2014
사진	(지면 제약 상 생략)
본문	Lorin Maazel, a former child prodigy who went on to become the music director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 died on Sunday at his home in Castleton, Va. He was 84 ...
유족	His wife survives him, as do their two sons, Leslie and Orson Maazel, and daughter, Tara Maazel ...
오보 정정	Correction: July 17, 2014 An obituary on Monday about the conductor Lorin Maazel misstated the reason the conductor Serge Koussevitzky invited Mr. Maazel to Tanglewood in the summer of 1951. It was to conduct the student orchestra there, not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표 4]는 GUARDIAN의 사망기사 기본구조이다. 2013년 11월 17일 별세한 소설가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을 예로 들었다.

표 4. GUARDIAN 사망기사 구조

제목	Doris Lessing obituary
부제	Visionary, prophet, feminist icon and Nobel prizewinner given to constant reinvention
작성자	Lorna Sage
기사 입력 시간	Sunday 17 November 2013 15.47 GMT
사진	(지면 제약 상 생략)
본문	Doris Lessing, who has died aged 94, was one of the major fiction writers of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
유족	Her two sons predeceased her, and she is survived by Jean and two granddaughters.
출생/사망정보	•Doris May Lessing, writer, born 22 October 1919; died 17 November 2013
기사/작성자 관련 정보	•This obituary has been revised since Lorna Sage's death in 2000

영미권 사망기사는 고인이 외국인이라도 내용구성 상 차이는 없었다. 다만, NYT에 게재된 한국인 사망기사를 주로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을 볼 때, 외국인의 경우 (가능하다면) 해당 국가 출신의 기자가 전담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훈(Choe Sang-Hun) 기사는 NYT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상 2009년 타계),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2011년 타계)의 사망 기사를 작성했고, 한국 및 북한 관련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NYT와 GUARDIAN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한국의 사망기사와 다른 특징으로는 ‘오보 정정’을 들 수 있다. NYT는 [표 3]의 마지막 줄과 같이 "Correction"이라 쓰고 이전 사망기사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을 정정한다. GUARDIAN의 사망기사도 기사 마지막에 "• This article was amended on 19 February 2014. The original stated that ..." [6]과 같이 기사 정정일과 정정 내용을 밝힌다.

NYT 조사 자료 중에는 한 사망기사에 오보 정정이 두 번인 경우도 있었다. 사망기사로 유명한 미국의 또 다른 유력 일간지 LA 타임스(the Los Angeles Times)

는 사망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7]. 영미권 신문의 이러한 잦은 오보 정정과 독자의 정정 요청은 사망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오보 정정의 예는 아니지만, NYT는 로켓 과학자 이본 브릴(Yvonne Brill)에 대한 사망기사가 성차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8]. 그만큼 사망 기사를 읽는 독자가 많고, 기사의 고인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를 독자가 판단한다는 방증이다.

영미권 사망기사의 또 다른 특징은 유명인의 사망 기사를 미리 작성하는 관습이다. 사망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미리 써 놓은 기사를 조금 수정하여 신게 되는데 [표 4]의 마지막 줄처럼 독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린다. 2011년 3월 23일 타계한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의 NYT 기사 역시 이러한 "advance obit"의 예이다. NYT는 기사 말미 오보 정정 바로 앞에 "Mel Gussow, the principal writer of this article, died in 2005. William McDonald, William Grimes and Daniel E. Slotnik contributed updated reporting." [9]이라 밝히고 있다. 바로 전 인용문에도 등장한 NYT의 사망기사 편집자 윌리엄 맥도널드(William McDonald)는 2012년 기사에서, NYT는 미리 작성한 사망기사 1,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문제 1면에 실리는 사망기사의 90 퍼센트 정도가 미리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10].

2. 신문별 사망기사 특징

먼저 사망 기사를 위한 지면을 따로 두는가 또는 사망 기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GUARDIAN과 NYT는 온라인판에서 사망 기사를 모아두고 검색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래 주소는 각각 GUARDIAN(<http://www.theguardian.com/tone/obituaries>)과 NYT(<http://www.nytimes.com/pages/obituaries>) 사망 기사 사이트로 연결된다.

NYT는 기사 제목에 'obituary'라 표기하지 않고 고인의 생전 주요 활동 분야에 따라 인쇄본의 다양한 지면에 사망 기사를 실는다. [표 3]에서 예로 든 지휘자 로린 마젤의 경우 음악(Music) 분야, 최근 별세한 영화배

우 로빈 윌리엄스(Robin Williams)의 경우 영화(Movies) 분야로 분류되어 실리는 식이다. 또한, NYT 온라인판은 기사의 마지막에 해당 기사가 인쇄본의 어느 면에 실렸는지 밝히고 있다. 대신, "Lorin Maazel, an Intense and Enigmatic Conductor, Dies at 84"와 같이 제목이 일정한 규칙(고인 이름 + dies/is dead + 나이)을 따르기 때문에 'obituary'라 표기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신문에서 사망 기사를 찾기는 어렵다. 많은 신문이 사망 기사를 위한 지면을 따로 두지 않고, GUARDIAN처럼 제목에 사망 기사라 표기하지도 않는다. 사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중앙일보의 [삶과 추억]과 동아일보의 [명복을 빕니다]도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관련 문헌 조사와 검색을 통해 발견한 것이다.

부고를 위한 지면이 따로 있는 한국 신문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사망 기사'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사망 기사를 '부고(부음)', '부고 기사' 등과 혼동하여 쓰는데 있다[11]. 실제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온라인판에서 사망 기사를 찾기 위해 "별세", "타계" 등의 단어로 검색을 해보아도 주로 [부고]가 검색되며, [삶과 추억] 또는 [명복을 빕니다]의 사망 기사로도 분류되지 않은, 부고도 사망 기사도 아닌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이는 한국에서 사망 기사를 망자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 기사처럼 취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1]. 영미권에서는 사망 기사를 뉴스로 보지 않는다. 사망 기사는 단순한 사망 고지(notification of death)를 넘어선 삶의 평가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고인의 전기(biography)로서 독립된 글쓰기 장르로 인식된다[10].

한국과 영미권 신문에서 공통된 특징은 한 기자가 여러 고인의 사망 기사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한 명의 기자가 특정 분야 또는 국가/지역을 맡아 관련 인사들의 사망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더글라스 마틴(Douglas Martin)은 NYT의 사망 기사 전문기자로서, 앞 절에서 언급한 로켓 과학자 이본 브릴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사망 기사를 썼다. GUARDIAN의 라이언 길비(Ryan Gilbey)는 영화비평가로서, 제임스 레브혼(James Rebhorn)과 최근 작고한 로빈 윌리엄스 등 배우들의 사망 기사를 작성했다. 중앙일보 문화부의 하현옥 기자는

김중철 한국시인협회장,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 등의 사망 기사를 맡았다.

3. 스티브 잡스 사망 관련 기사 비교 - 영미권 매체 vs. 한국 매체

한국어와 영어 사망 기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 고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영어 사망 기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텍스트로 2011년 10월 5일 타계한 애플(Apple, Inc.)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사망 기사를 선택했다. 잡스의 사망 시기가 2011년으로 비교적 최근이고, 잡스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서 한국 매체에서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기에 분석에 필요한 영어 및 한국어 기사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10월 7일, 주요 한국 신문들은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잡스의 사진과 함께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고(故) 스티브 잡스의 사망 기사 분석을 위해 영미권 주요 매체 기사 11개와 주요 한국 신문 기사 11개를 모아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영문 코퍼스에는 NYT, LA 타임스, GUARDIAN,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등 영미 주요 일간지와 주간지 타임(Time),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등이 포함됐다. 국문 코퍼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 기사로 구성했다.

영문 기사는 11개 중 9개가 사망 기사(obituary)라 분명히 표기되어 있었으나, 한국어 기사는 잡스의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도 어느 기사가 사망 기사인지 확실히 표기하지 않았다. 대신 대부분 신문들이 잡스 사망 특집 기사를 내었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각각 잡스의 [삶과 추억], [명복을 빕니다] 사망 기사를 따로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기사는 주요 일간지 기사 중에서 내용상 잡스의 사망 기사라 볼 수 있는 것으로 11개를 선택해 코퍼스에 포함시켰다. [표 5]는 스티브 잡스 사망 기사 코퍼스의 간략정보이다.

표 5. 스티브 잡스 사망기사 코퍼스 간략정보

	영미권 기사 11개	한국어 기사 11개
매체 -기사제목	Los Angeles Times - Steve Jobs dies at 56; Apple's co-founder transformed computers and culture	동아일보 - [스티브 잡스 사망] 천국에 로그인
	Wall Street Journal - Steven Paul Jobs, 1955-2011 Apple Co-Founder Transformed Technology, Media, Retailing And Built One of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ies	조선닷컴 -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사망
	Reuters - Steve Jobs "may never be equaled"	경향신문 - 이전, 잡스 없는 세상
	Guardian Steve Jobs obituary - Computing entrepreneur and inventor, and the co-founder, chairman and recognisable face of Apple	중앙일보 - '갈망하라 무모하라 그렇게 살아라' (스티브 잡스)
	.	.
발행일	2011. 10. 5. ~ 10. 6.	2011. 10. 6. ~ 10. 7.
총 단어 수	24,446	4,887
총 문장 수	1,322	359

[표 5]에서 볼 수 있는 영어 기사와 한국어 기사의 외형상 차이로는 텍스트 길이를 들 수 있다. 세는 단위가 영어는 단어 기준이고 국어는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 기준이기에 수치를 일대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영어 기사가 한국어 기사에 비해 약 5배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매체의 입장에서는 고인이 외국인(미국인)이기에 영미권 신문의 기사보다 길이가 더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혜정[11]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국 매체 영어 사망기사와 영어권 신문의 사망 기사 길이를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영어권 기사의 길이가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퍼스 구축 후, 각 언어 텍스트의 내용 비교를 위해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 워드스미스(WordSmith)[12]를 사용하였다. 먼저 어휘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워드스미스로 어휘목록(wordlist)을 생성하였다. 어휘목록은 텍

스트에 사용된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한 목록이다. [그림 2]는 잡스 사망기사 코퍼스의 어휘목록이다. 지면 제약 상 상위 40개 항목만 제시한다.

N	Word	Freq.	%	Text#	%	N	Word	Freq.	%	Text#	%
1	THE	1,234	5.05	11	100.00	1	#	333	6.81	11	100.00
2	A	716	2.93	11	100.00	2	잡스는	76	1.56	10	90.91
3	AND	681	2.79	11	100.00	3	스티브	55	1.13	11	100.00
4	TO	622	2.54	11	100.00	4	잡스	39	0.80	11	100.00
5	OF	597	2.44	11	100.00	5	잡스가	33	0.68	10	90.91
6	IN	592	2.42	11	100.00	6	애플은	26	0.53	9	81.82
7	#	577	2.36	11	100.00	7	애플의	26	0.53	9	81.82
8	JOBS	464	1.90	11	100.00	8	잡스의	25	0.51	8	72.73
9	HE	454	1.86	11	100.00	9	이	24	0.49	7	63.64
10	WAS	358	1.46	11	100.00	10	애플을	23	0.47	8	72.73
11	APPLE	307	1.26	11	100.00	11	컴퓨터	23	0.47	9	81.82
12	HIS	295	1.21	11	100.00	12	세상을	21	0.43	6	54.55
13	THAT	259	1.06	11	100.00	13	CEO	19	0.39	9	81.82
14	WITH	215	0.88	11	100.00	14	가장	19	0.39	7	63.64
15	IT	213	0.87	11	100.00	15	그의	19	0.39	10	90.91
16	FOR	200	0.82	11	100.00	16	수	19	0.39	9	81.82
17	AS	179	0.73	11	100.00	17	애플	19	0.39	8	72.73
18	HAD	167	0.68	11	100.00	18	하지만	19	0.39	7	63.64
19	BY	147	0.60	11	100.00	19	그는	18	0.37	6	54.55
20	AT	146	0.60	11	100.00	20	고	17	0.35	7	63.64
21	MR	143	0.58	4	36.36	21	미국	17	0.35	8	72.73
22	ON	142	0.58	11	100.00	22	혁신의	17	0.35	9	81.82
23	AN	138	0.56	11	100.00	23	물	15	0.31	7	63.64
24	COMPUTER	128	0.52	11	100.00	24	IT	14	0.29	7	63.64
25	COMPANY	118	0.48	11	100.00	25	세계	14	0.29	7	63.64
26	FROM	110	0.45	11	100.00	26	아이폰	14	0.29	9	81.82
27	BUT	103	0.42	11	100.00	27	지난	14	0.29	8	72.73
28	ONE	89	0.36	11	100.00	28	이후	13	0.27	7	63.64
29	WHO	88	0.36	11	100.00	29	한	13	0.27	6	54.55
30	SAD	87	0.36	10	90.91	30	있다	12	0.25	6	54.55
31	STEVE	77	0.31	11	100.00	31	함께	12	0.25	7	63.64
32	YOU	77	0.31	11	100.00	32	PC	11	0.23	6	54.55
33	WHEN	72	0.29	10	90.91	33	사망	11	0.23	7	63.64
34	ITS	71	0.29	10	90.91	34	아이폰	11	0.23	6	54.55
35	WERE	69	0.28	11	100.00	35	최고의	11	0.23	5	45.45
36	HIM	68	0.28	11	100.00	36	된	10	0.20	6	54.55
37	IS	68	0.28	10	90.91	37	이날	10	0.20	6	54.55
38	MORE	68	0.28	10	90.91	38	출세	10	0.20	4	36.36
39	BE	67	0.27	10	90.91	39	개인용	9	0.18	8	72.73
40	AFTER	66	0.27	11	100.00	40	그	9	0.18	5	45.45

그림 2. 잡스 사망기사 영문(왼쪽)과 국문(오른쪽) 어휘목록

영문 기사와 국문 기사의 어휘목록 대조 결과 두 목록 모두에서 “JOBS/잡스”, “STEVE/스티브”, “APPLE/애플”, “COMPUTER/컴퓨터”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영문과 국문 텍스트 모두 고인 스티브 잡스를 대상으로 한 사망기사이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왼쪽 영문 어휘목록에서는 “THE”, “A”, “AND”, “TO”, “OF”, “IN”이 1위에서 6위까지 목록의 상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사, 접속사, 전치사들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어로서 영어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쓰이는 어휘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문 사망기사와 국문 사망기사의 내용 비교를 위해 위와 같은 기능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내용어에 초점을 맞춰 두 목록을 비교할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오른쪽 국문 어휘목록의 빈도 33위 항목인 “사망”이 영문 기사 어휘목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2]에는 기능어를 포함하여 빈도 상위 40위 항목까지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어휘목록 상위

를 차지하는 기능어들이 많은 영어는 기능어를 제외한 목록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관사, 전치사 등 불용어 목록(stop list)을 적용한 분석 결과, 영문 목록의 125위에 “DEATH”(15회), 181위에 “DIED”(12회), 905위에 “DEAD”(3회), 1286위에 “DIES”(2회)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PASSING”(1516위, 2회)과 “passed [away]”(1회)의 쓰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휘의 빈도 순위보다는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율(percentage)이다. “DEATH”(0.06%), “DIED”(0.05%), “DEAD”(0.01%) 등이 영문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모두 더하면 약 0.14%이고, “사망”(0.23%)에 “사망했음”(3회, 0.06%), “사망에”(1회, 0.02%) 등의 비율을 더하면 약 0.37%가 된다. 비율상으로도 국문 텍스트에서 기본형(lemma) “사망”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기사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 중 “사망”이 높은 빈도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은 한국어 기사 11개 중 7개에서 11회 사용되었고, 그 중 7회는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사망”, “스티브 잡스 사망” 등으로 기사 제목에 쓰였다. 반면, 한국어 사망기사와 부고 제목에 자주 쓰이는 “타계”와 “별세”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타계”는 기사 부제에 1회 쓰였고, “타계한”이 기사 본문에 2회 쓰였다. 그리고 “별세”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미국 신문과 한국 신문의 사망기사 제목을 비교한 전지연[4]에 따르면 미국 신문은 “dies”, “dead” 등 죽음을 직접 표현하는 급기어 사용이 많고, 한국 신문은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하는 “사망”과 같은 표현 대신 “별세”, “타계” 등의 어휘를 사용한 완곡어법을 선호한다고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되었다[표 1-표 4][그림 1]. 중앙일보 100개의 사망기사 중 외국인 고인 31명을 제외한 한국인 고인 69명의 사망기사에서는 “사망”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 한국어 사망기사에서 “사망”의 쓰임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국 신문이 외국인 고인의 경우, 외신을 번역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영어의 “dies”와 “dead”가 “사망” 또는

“사망하다”로 번역된 때문으로 보인다. 잡스의 한국어 사망기사가 외신을 번역하거나 인용한 증거는 동일한 내용이 여러 한국어 기사들에서 발견되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은 잡스의 사망을 알리는 애플의 발표문을 직접 인용하여 “(스티브의 열정, 에너지가 혁신의 원천이 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풍부해지고 향상됐다”라고 일제히 적었다.

잡스의 국문 사망기사가 영문 사망 기사를 번역하거나 인용하여 작성된 경우가 많다고 해도 국문 기사와 영문기사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워드스미스의 클러스터(cluster) 분석에서 힌트를 얻어 자세히 살펴본 결과, 국문 기사와 영문 기사에 각각 공통되는 내용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러스터란 여러 개의 단어가 한 덩어리처럼 같이 쓰이는 구조로서,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클러스터는 텍스트에서 특정 어구가 반복되면서 보이는 특징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13].

잡스의 국문 사망기사와 영문 사망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어구가 있는지, 있다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문과 영문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2 어절 클러스터(two-word-cluster) 분석을 실시했다. 2 어절 클러스터란 2개 단어가 한 묶음처럼 연속해서 같이 쓰이는 것을 말한다. 아래 [그림 3]에서 1번 항목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와 “잡스” 2개 단어가 연속해서 쓰여 10개의 텍스트에서 총 25회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면 제약 상 상위 20개 클러스터만 제시한다.

N	Word	Freq.	%	Texts	%
1	스티브 잡스	25	0.51	10	90.91
2	스티브 잡스가	10	0.20	7	63.64
3	잡스 사망	9	0.18	7	63.64
4	개인용 컴퓨터	8	0.16	7	63.64
5	최고경영자 CEO	8	0.16	6	54.55
6	이 시대	7	0.14	4	36.36
7	세계에서 가장	6	0.12	4	36.36
8	세상을 떠났다	6	0.12	4	36.36
9	스티브 잡스는	6	0.12	5	45.45
10	시대 최고의	6	0.12	3	27.27
11	간 이식	5	0.10	4	36.36
12	스티브 워즈니악과	5	0.10	5	45.45
13	컴퓨터 PC	5	0.10	5	45.45
14	고 밝혔다	4	0.08	4	36.36
15	뉴스 국제	4	0.08	4	36.36
16	버락 오바마	4	0.08	4	36.36
17	추 있는	4	0.08	3	27.27
18	스티브 잡스의	4	0.08	4	36.36
19	아이폰과 아이패드	4	0.08	3	27.27
20	매도를 표했다	4	0.08	3	27.27

그림 3. 잡스 국문 사망기사 2 어절 클러스터 목록

전체 클러스터 항목 중에서 인명(人名), 기관명 등 고유명사와, 잡스의 사망원인이었던 췌장암 등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에서 공통된 내용을 제외한 결과 국문기사의 특징적인 어구로 16번 항목 “벼락 오바마”(4회)와 20번 항목 “애도를 표했다”(4회)가 눈에 띄었다. 반복 횟수 4회는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빈도가 아니지만, 한국어 기사 코퍼스 자체가 4,887 단어로 소규모이므로 의미 있는 빈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벼락 오바마”는 고유명사이지만, 스티브 잡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쓰인 것이 두드러졌기에 국문 기사의 특징적인 패턴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이 각각 쓰인 문맥을 확인할 수 있는 용례색인(concordance) 내용을 살펴보니 벼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세계는 위대한 예지자를 잃었다”며 잡스를 애도한 말과, 애플, 월트 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 등에서 애도를 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쓰인 어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앞에서 논의한 “사망”이 높은 빈도로 사용된 이유와 종합해보면 다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신문들은 외국인 고인의 경우 공통된 소스(source)로서 외신을 사용하고 이를 번역 및 직접 인용하여 보도한다. 둘째, 잡스의 국문 사망기사는 가치판단을 배제한 뉴스로서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삶을 기념(commemorate)하는 기록으로서 고인의 삶을 평가하는 영문 사망기사와는 달리, 유족의 말이나 명사(名士)의 애도 표현을 인용하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 전달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뉴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2014년 8월 타계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국문 사망기사에서도 상기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국문에 비해 영문에 집중적으로 쓰여 영문 코퍼스의 내용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어구를 꼽는다면 [그림 4]의 389번 항목 “JEANS AND”(5회)와 414번 항목 “SUGARED WATER”(5회)를 들 수 있다. 지면 제약상 해당 클러스터 부분만 제시한다.

[그림 4]의 389번 클러스터에 나온 “jeans”의 용례색인은 [그림 5]와 같다. “jeans”는 7개 텍스트에서 총 12회 쓰였다.

N	Word	Freq	%	Texts	%
385	INDUSTRY AND	5	0.02	4	36.36
386	IS A	5	0.02	3	27.27
387	IS TO	5	0.02	3	27.27
388	IT BECAME	5	0.02	3	27.27
389	JEANS AND	5	0.02	4	36.36
390	JOBS A	5	0.02	3	27.27
391	JOBS IN	5	0.02	3	27.27
392	JOBS TURNED	5	0.02	5	45.45
393	JOBS WANTED	5	0.02	3	27.27
394	JOBS WOULD	5	0.02	3	27.27
395	KNOW WHAT	5	0.02	4	36.36
396	LATER THE	5	0.02	4	36.36
397	LIBERAL ARTS	5	0.02	3	27.27
398	LIKE A	5	0.02	3	27.27
399	MADE A	5	0.02	4	36.36
400	MUSIC PLAYER	5	0.02	4	36.36
401	MUSIC STORE	5	0.02	4	36.36
402	NEW PRODUCTS	5	0.02	5	45.45
403	NEXT TO	5	0.02	4	36.36
404	NO LONGER	5	0.02	5	45.45
405	NOT THE	5	0.02	4	36.36
406	NOT TO	5	0.02	4	36.36
407	OF PANCREATIC	5	0.02	4	36.36
408	OF WHICH	5	0.02	5	45.45
409	ON HIS	5	0.02	4	36.36
410	PAUL AND	5	0.02	5	45.45
411	PRODUCTS THAT	5	0.02	5	45.45
412	REMEMBERING THAT	5	0.02	3	27.27
413	SOFTWARE AND	5	0.02	3	27.27
414	SUGARED WATER	5	0.02	5	45.45

그림 4. 잡스 영문 사망기사 2 어절 클러스터 목록

N	Concordance
1	I don't know that the image of a leader clad in a bow tie, jeans and suspenders would help us survive in the coming
2	2.0 had one uniform — a black mock turtleneck, Levi 501 jeans and New Balance 992 sneakers. With kabuki-like
3	public, he rarely deviated from an outfit consisting of Levi's jeans, a black mock turtleneck and New Balance running
4	skin to revivalist rallies, with Jobs, in black turtleneck, jeans and trainers, preaching the message that salvation
5	dressed in his habitual black turtle neck jumper and faded jeans. His thin and somewhat gaunt appearance fuelled
6	team. He was barefoot as he spoke, and wearing blue jeans. That September he announced a new venture,
7	new products for a global market in his trademark blue jeans even as he grew gaunt and frail. He underwent
8	do this?" A moment later, he pulled the first iPod from his jeans pocket to show off the answer. With the iPod's
9	always appeared in public in a black turtleneck, worn jeans and sneakers. Apple's "Think Different" ad campaign
10	to introduce new products. The black mock turtleneck and jeans that became the defining Jobs outfit showed up at
11	in the late 1990s. But he pulled the iPod out of a jeans pocket to introduce the music player in 2001. From
12	From then on, he barely seemed to take off the outfit. The jeans and running shoes flashed under his academic

그림 5. “jeans” 용례색인

[그림 5]에서 눈에 띄는 점은 “jeans”가 “black (mock) turtleneck”, “outfit”, “sneakers”, “uniform” 등의복이나 옷차림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함께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다. 용례색인 5번 항목의 “... dressed in his habitual black turtle neck jumper and faded jeans”를 비롯한 2~12번 항목은 모두 같은 맥락의 표현들로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스티브 잡스의 소탈함과 겸소한 생활습관을 드러낸다.

[그림 4]의 414번 클러스터 “SUGARED WATER”는 잡스가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selling sugared water or do you want a chance to change the world?”라며 웹시컬라의 존 스컬리(John Sculley)를 애플에 스카우트한 일화에서 5회 쓰였다. 이 역시 잡스의 거침없는 성격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다.

“티틀넥”(2회)과 “설탕물”(1회), “청바지”(0회)가 한국어 텍스트에는 거의 쓰이지 않은 반면, “jeans”(12회)

와 “sugared water”(5회)가 영어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된 것은 고인의 행동이나 일화를 통해 그의 성격을 묘사하는 영미권 사망기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의 사망기사를 비교분석한 스타크(Nigel Starck)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는 영국 사망기사가 독창적인 글쓰기와 일화를 통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인의 성격묘사(character sketch)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14]. 이러한 일화 소개와 인물의 성격묘사는 전기(biography)와도 비슷한 특성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영국의 가디언, 미국의 뉴욕 타임스 사망기사를 코퍼스로 구축하여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를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먼저 각 신문 사망기사의 구조를 보이고 구성요소를 비교하였다. 한국어 사망기사는 부고처럼 유족, 빈소, 발인일시, 연락처 등을 자세히 기술한 점이 독특했다. 유족은 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의무를 행하고 지인 및 관계된 사람들은 조문함으로써 서로 예(禮)를 다하도록 하는 부고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영어 기사는 유명인의 사망기사를 미리 작성하는 관습,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며 기사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모습에서 한국과는 다른 사망기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명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유족이 비용을 낸 유료 사망기사(paid obituary)나 부고를 낸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그림 1].

마지막 장(章)에서는 사망기사의 제목, 기사가 실리는 지면, 담당 기자를 중심으로 각 신문 사망기사의 형식상 특징을 정리하였다. 특히 3절에서는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 워드스미스를 활용하여 고(故) 스티브 잡스 한국어 사망기사와 영어 사망기사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코퍼스 분석기법 활용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텍스트의 패턴을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또한, 직관에 의존한 해석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티브 잡스 한국어 사망기사와 영

어 사망기사 코퍼스를 분석하였다. 먼저 워드스미스의 어휘목록 및 클러스터 분석으로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의 고(高)빈도어를 추출한 후, 용례색인(concordance)으로 어휘가 쓰인 문맥을 살펴 특징적인 패턴을 찾는 정성분석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망”과 “jeans”가 각각 한국어와 영어 기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표현들은 특정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각 언어 사망기사의 특성을 드러냈다.

“사망”은 영어의 “dies/died/dead”를 그대로 번역한 형태로서, “타계”나 “별세” 등을 주로 쓰는 한국의 사망기사 관습(convention)과 차이를 보였다. “사망”, “애도를 표했다” 등의 반복 사용에서, 외국인 고인 대상 한국어 사망기사가 1) 외신을 번역, 인용하는 공통점을 보이며, 2) 객관적 시각의 뉴스 기사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잡스의 영문 사망기사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 “jeans”와 “sugared water”의 용례색인에서는 인물의 성격묘사가 부각되는 영미권 사망기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싱클레어(John Sinclair)를 인용한 하명정의 설명처럼 언어자료에서 빈도는 곧 중요성을 뜻한다[15]. 이처럼, 텍스트에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은 각 언어·문화에서 중시하는 관념과 직접 연관된다. 영미권 사망기사가 “jeans”와 “sugared water” 일화로 잡스의 검소함과 도전정신을 그리며 이를 은연중에 대중에게 그들 문화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치로서 부각시킨다면, 한국의 뉴스 기사 같은 사망기사는 고인에 대한 평가를 삼가는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언어·문화에서 중시하는 내용 및 금기(taboo)는 죽음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사망기사 작성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언어·문화 관습에 따라 한국어 사망기사를 작성하듯이, 다른 언어로 작성 또는 번역 시에도 각 언어와 관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가 미흡한 사망기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와 영어 사망기사의 내용 및 형식을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코퍼스 분석기법을 활용한 정량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정성분석을 거쳐 한국어와 영어 사망기사의 고유 특성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는 소규모 코퍼스임에도 클러스터, 용례색인 등 최신 코퍼스 분석기법으로 한국어와 영어 사망기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고인의 영어 사망기사와 한국어 사망 기사에 더해, 한국인 고인의 한국어 사망 기사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면 신혜정[11]과 본 연구 결과에 더해 한국인 및 외국인 고인의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 각각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최신 코퍼스 분석도구를 활용한 사망기사 연구방법을 보임으로써 국내 연구기반이 취약한 사망 기사 및 부고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1] 박여성, “화행론적 텍스트유형학을 위하여”, 텍스트언어학, 제2권, pp.7-60, 1994.
 [2] 이성만, “텍스트종류 ‘부음’의 한·독 비교 연구 시론 - 텍스트의 통보적 기능과 거시구조의 텍스트 유형학적 차이를 중심으로”, 독어학, 제2집, pp.307-342, 2000.
 [3] 이완수, 박재영, 노성중, 이수미, 강충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정치학: 부음(부음)기사 (중앙일보 <삶과 추억>)에 나타난 집합기억과 망각의 구성”,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5호, pp.221-243, 2009.
 [4] 전지연, 미국 신문과 한국 신문의 사망 기사와 부고에서 사용되는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의 차이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 <http://www.legacy.com/obituaries/nytimes/obituary.aspx?n=doris-k-aronow&pid=172193663&fhid=2086>
 [6]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4/feb/10/stuart-hall>
 [7] <http://www.legacy.com/obituaries/latimes/obitu>

ary-questions.aspx#Faq9

[8]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3/31/ny-times-yvonne-brill-obituary-criticism_n_2988690.html
 [9] http://www.nytimes.com/2011/03/24/movies/elizabeth-taylor-obituary.html?pagewanted=all&_r=0
 [10] http://publiceditor.blogs.nytimes.com/2012/04/16/the-science-of-obituaries-dead-pools-obits-in-the-can-and-more/?_php=true&_type=blogs&_r=0
 [11] 신혜정, “사망기사에 관한 소고 - 한국 및 영어권 신문 사망기사 비교분석”, 영어영문학21, 제27권, 제3호, pp.231-256, 2014.
 [12] M. Scott, *WordSmith Tools (Version 5.0)*, Liverpool: Lexical Analysis Software, 2010.
 [13] M. Scott, *WordSmith Tools Program Manual (Version 5.0)*, Liverpool: Lexical Analysis Software, 2010.
 [14] N. Starck, “Posthumous Parallel and Parallax: The Obituary Revival on Three Continents,” *Journalism Studies*, Vol.6, No.3, pp.267-283, 2005.
 [15] 하명정, “코퍼스에 기반한 문학텍스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440-447, 2013.

저 자 소 개

신 혜 정(Hyejung Shin)

정희원



- 2005년 5월 : 몬트레이 국제대학원(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번역석사)
 - 2008년 3월 ~ 2011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영어과 교수
- <관심분야> : 통번역학, 담화분석, 코퍼스 언어학